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우리의 민속놀이인 칠교놀이가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주제를 ‘일곱 조각으로 만드는 즐거움, 칠교놀이’로 정했는데요, 혹시 칠교놀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예상대로 많지 않네요.

칠교놀이는 칠교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나무 조각으로 인물, 동물, 식물, 건축물 등의 모형을 그려 놓은 칠교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놀이입니다. (일곱 조각의 칠교를 보여 주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칠교인데요, 칠교는 10cm쯤 되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을 크기가 각기 다른 직각 삼각형 5개, 정사각형 1개, 평행 사변형 1개 이렇게 총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칠교놀이의 방법을 그림으로 풀이한 『칠교해』라는 책까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칠교놀이를 즐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칠교놀이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방금 보신 동영상에서 칠교놀이의 중요한 규칙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여러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일곱 조각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칠교놀이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는데요, (시계를 본 후)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오늘은 여럿이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 명이 칠교놀이를 할 때에는 편을 나눠 상대방이 칠교도에서 지정한 모형을 협동해 만듭니다. 칠교도는 문제도와 해답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에서 ‘토끼 만들기’를 제시하면 문제도에서 토끼 모형을 찾아 만들고, 만든 모형이 해답도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모형을 맞추면 1점을 얻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놀이를 진행해 두 편 중 먼저 목표 점수에 도달한 쪽이 놀이에서 이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칠교놀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 발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민속예술사전』의 민속놀이 편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칠교놀이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칠교놀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칠교놀이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칠교놀이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상황 분석>

-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발표임. …… ㉠
- 발표 장소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교실임. …… ㉡
- 청중이 칠교놀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임. …… ㉢
-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함. …… ㉣

㉡ <실행 계획>

-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며 발표를 진행함. …… ㉣

- ① ㉠: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위해 참고한 문헌을 밝힌다.
- ② ㉡: 청중이 칠교놀이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시하며 설명한다.
- ③ ㉢: 칠교놀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교의 실물을 보여 준다.
- ④ ㉣: 정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할 내용의 분량을 조절한다.
- ⑤ ㉣: 청중의 요청에 따라 칠교놀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소개한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칠교놀이 외에 선조들이 즐겨 행했던 민속놀이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발표자가 언급한 책을 찾아봐야겠어.

학생 2: 칠교놀이 방법을 보니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 모형의 문제도를 빨리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

학생 3: 칠교의 크기가 작았다고 하는 걸 보니 소지하기가 편해 어디에서든 칠교놀이를 할 수 있었겠네.

-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평가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학생 2와 달리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이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4~7] (가)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신문에 실은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지금부터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종이투표’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커서 이동이 어려운 계층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외출 자체가 제한된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국의 경우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직자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한 결과 투표 참여율도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종이투표 대신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경우 종이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이나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2:** 저희가 미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례로 든 ○○국의 경우 인구 약 130만 명의 매우 작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따졌을 때 약 40배나 더 큰 규모인 우리나라에 ○○국의 온라인투표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찬성 1:**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온라인투표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국의 공직자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선거에서도 온라인투표를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전 투표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어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투표권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비율은 약 1.1%로 매우 낮습니다. 온라인투표가 종이투표에 비해 투표권 보장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대리 투표와 같은 부정 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선거의 중요한 원칙인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일에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경우 오히려 선거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찬성 1:** 종이투표의 경우도 타인의 압박이나 회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 등으로 인해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반대 1:** 어떠한 투표 방식이든 타인의 압박이나 회유가 발생한

다면 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속 권한만 가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가 선거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

####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해야 할까?

최근 보안 기술의 발달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경우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투표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직업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한 ○○대학교의 경우 투표율이 46%에서 80%로 상승했고, 인근 △△대학교의 경우도 54%에서 81%로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공직자 선거에서 종이투표 방식을 온라인투표로 대체할 경우 1인당 선거 관리 비용이 약 5,000원에서 약 400원으로 줄어들어 공직자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투표에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대리 투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리 투표의 경우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온라인투표는 온라인 접속 권한만 갖게 되면 타인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투표 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접속 권한에 대한 철저한 보안과 성숙한 국민 의식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종이투표 방식을 지속하되, 온라인투표를 공직자 선거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 선거에 두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투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투표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 선거 관리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투표의 시행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A]는 종이투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의 투표 방식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최근 실시된 공직자 선거의 투표율을 근거로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B]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를 언급하며 온라인투표 도입으로 인한 투표율 상승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종이투표의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투표가 투표권 보장에 더 유리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5. <보기>를 고려할 때, (가)의 반대 신문 과정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토론에서 반대 신문은 진리 검증의 협력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상대방의 입론을 예측하여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론을 경청한 후 발언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하기도 한다. 이때, 질문자는 자신의 주장이 아닌 상대방의 발언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 발언의 오류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답변자는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답변을 보충할 수 있다.

- ① 반대 2는 찬성 1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② 반대 2는 찬성 1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입론 내용을 예측하여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가 담긴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찬성 측 의견의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수치 자료를 들어 답변을 보충하고 있다.
- ④ 찬성 1은 반대 1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의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하며 반대 1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찬성 1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여 찬성 측과의 협력적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6. (나)의 작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온라인투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작문 목적으로 설정했다.
- ②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했다.
- ③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했다.
- ④ 현재의 투표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투표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는 글의 유형을 선택했다.
- ⑤ 온라인투표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정하여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7. (가)의 토론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에서 언급된 두 입장 중 온라인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의 발언 내용을 글의 첫 문단에 반영하고 있다.
- ②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두 대학교의 투표율 변화 사례를 추가하여 온라인투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토론에서 언급된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토론에서 언급된 두 입장 중 온라인투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의 발언 내용을 반영하여 온라인투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 ⑤ 토론에서 선거 관리 비용과 관련해 언급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여 온라인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8~10] 다음은 교지 편집부의 요청에 따라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사회’ 기획 연재와 관련하여 ‘공유 경제’를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공유 경제의 개념, ㉡공유 경제의 현황, ㉢공유 경제의 의의와 전망을 포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초고]

공유 경제란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 활동을 의미한다. 중고 물품을 나눠 쓰는 것도 공유 경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공유 경제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는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자동차, 빈방, 옷, 전자기기 등의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재능 및 지적 재산 등의 무형 자원까지 공유 경제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공유 경제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유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공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도 미비한 상황이다.

공유 경제를 통해 소유자는 이용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유 경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줄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친환경적이고 협력적인 공유 경제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8. 초고에서 ㉠~㉢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공유 경제의 어원을 밝히면서 그 개념을 제시했다.
- ② ㉡: 공유 경제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원의 종류를 제시했다.
- ③ ㉢: 공유 경제의 이용 현황을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별로 제시했다.
- ④ ㉢: 공유 경제의 분야별로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 ⑤ ㉢: 공유 경제의 효용을 보여 주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9.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에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에 대한 검토 의견 중 ( ㉠ )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공유 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하는 소비문화와 맞물려 공유 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 ① 공유 경제의 사례 삭제, 공유 경제의 범위 추가
- ② 공유 경제의 사례 삭제, 공유 경제의 필요성 추가
- ③ 공유 경제의 사례 삭제, 공유 경제의 확산 배경 추가
- ④ 자원 공유 목적 삭제, 공유 경제의 필요성 추가
- ⑤ 자원 공유 목적 삭제, 공유 경제의 확산 배경 추가

10.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공유 경제 관련 소비자 보고서

(가-1)

<국내 공유 경제 규모>

(가-2)

<소비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

(나) ○○신문 기사 자료

□□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예산을 활용한 공공 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 시민들은 누구나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그리고 관공서 주변의 자전거 무인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자료

“공유 경제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모든 자원을 낭비 없이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표방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 점점 상업화되면서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대형 플랫폼을 선점한 공유 경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자 간에 거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공유 경제 규모의 성장 추세에 대해, 공유 경제 활동이 창출하는 부가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뒷받침한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공유 경제의 효과에 대해, 새 상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공유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뒷받침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의 다양화에 대해, 개인 간 공유보다 지방 자치 단체가 주도하는 공유 경제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구체화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공유 경제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 경제의 상업화가 비합리적 소비나 시장 독점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구체화한다.
- ⑤ (다)를 활용하여, 협력적인 공유 경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에 대해, 이용자 사이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피동은 크게 피동사 피동과 ‘-아/-어지다’ 피동으로 나뉜다. 피동사 피동은 파생어인 피동사에 의한다고 하여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동사는 능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피동 접미사 ‘-이-, -하-,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진다. 이때 ‘(건반을) 누르다’가 ‘눌리다’로 바뀌는 것처럼 동사의 불규칙 활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능동사가 피동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던지다, 지키다’와 같이 어간이 ‘ㅣ’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기 어렵고, ‘만나다’나 ‘싸우다’와 같이 대칭되는 대상이 필요한 동사, ‘알다’나 ‘배우다’와 같이 주체의 지각과 관련된 동사 등은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아/-어지다’ 피동은 동사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한 ‘-아/-어지다’가 붙어서 이루어 지는데, 이를 통사적 피동이라고도 부른다. 동사에 ‘-아/-어지다’가 결합되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결합되면 동사화되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15세기 국어에서도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피동 접미사 ‘-이-, -하-, -기-’가 붙어 만들어졌는데, 이때 ‘ㄹ’로 끝나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이어지지 않고 분절하여 표기하였다. 통사적 피동은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와 보조 동사 ‘디다’가 결합한 ‘-아/-어디다’가 사용되었다. 한편, 15세기 국어에는 피동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고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현대 국어보다 많이 존재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이) 실리다’는 피동사 파생이 동사의 불규칙 활용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② ‘(소리가) 작아지다’는 용언의 어간에 ‘-아지다’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③ ‘(줄이) 꼬이다’는 동사 어간 ‘꼬-’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피동사로 파생되었다.
- ④ ‘경찰이 도둑을 잡다.’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다.
- ⑤ ‘(아버지와) 닮다’는 대칭되는 대상이 필요한 동사로 피동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되지 않는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風輪에 ㉠ 답겨(답-+-기-+-어)  
[풍륜에 답겨]
- 피해 살이 ㉡ 박거늘(박-+-거늘)  
[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 옥문이 절로 ㉢ 열이고(열-+-이-+-고)  
[옥문이 절로 열리고]
- 드트리 드외익 ㉣ 붓아디거늘(붓스-+-아디-+-거늘)  
[티끌이 되어 부수어지거늘]

- ① ㉠은 능동사 어간에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되었군.
- ② ㉡는 파생적 피동이 일어난 단어가 아님에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③ ㉢는 ‘-고’로 끝나는 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후 분절되어 표기되었군.
- ④ ㉣는 동사 어간 ‘붓스-’에 ‘-아디-’가 붙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⑤ ㉡와 ㉣는 모두 피동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통사적 피동에 해당하진 않군.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국어의 음절 중성에서는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접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답만[담만]’은 ㉠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막지[막찌]’는 ㉡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 ㉠         | ㉡      |
| ① 값만[감만]  | 흙과[흑과] |
| ② 잃는[일른]  | 웁고[읍꼬] |
| ③ 덮지[덱찌]  | 박혀[발켜] |
| ④ 밟는[밤:는] | 닭다[닥따] |
| ⑤ 짚어[절머]  | 짧지[찰찌] |

14.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부사와 용언의 결합처럼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 통사적 합성어와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것처럼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보기 2>

덧밥, 돌다리, 하얀색, 높푸르다, 잘생기다

- ① 돌다리, 높푸르다
- ② 덧밥, 돌다리, 하얀색
- ③ 덧밥, 하얀색, 높푸르다
- ④ 돌다리, 하얀색, 잘생기다
- ⑤ 돌다리, 하얀색, 높푸르다, 잘생기다

15.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데<sup>1</sup> 「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데<sup>2</sup>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는데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   |    |     |     |     |      |       |
|---|----|-----|-----|-----|------|-------|
| ① | 밥은 | 있는데 | 반찬이 | 없소. |      |       |
| ② | 지금 | 가는  | 데가  | 어디  | 인가요? |       |
| ③ | 그  | 사람은 | 말을  | 아주  | 잘하   | 데.    |
| ④ | 그는 | 의지  | 할   | 데   | 없는   | 사람이다. |
| ⑤ | 책을 | 다   | 읽는데 | 만   | 이들이  | 걸렸다.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 포괄적 합리성과 ㉡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중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앨리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인식된다.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절차(SOP),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

반을 ㉢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은 ㉣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두 모델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이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하여 조직 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특징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정책 행위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외교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모델의 분석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연합체로서의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단일체로서의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 본다.
-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
- ④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가 효용을 계산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국가가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본다.
- 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은 결과로 본다.

1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행위자의 지식이, ㉡은 행위자의 목적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다.
- ②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본다.
- ③ ㉠은 ㉡과 달리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④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이다.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B국과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한편 B국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 협정 체결 중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단, A국과 B국은 독립 국가이며 국내외의 다른 정치 외교적 상황은 양국의 정책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했다면,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해 가장 큰 효용을 가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겠군.
-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겠군.
-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평화 협정 체결이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분석했다라도, 이 관점에서는 왜 B국이 평화 협정 체결을 정책 행위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겠군.
- ④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목적이 무엇인가보다는 어떻게 그 정책 행위가 선택되었는가를 분석하겠군.
- ⑤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이 평화 협정 체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면, 관련 조직들의 SOP 및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B국의 정책 행위를 설명하겠군.

2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 ② 주말에 바둑을 두는 것이 취미이다.
- ③ 앞의 사람과 간격을 두며 줄을 섰다.
- ④ 위험물을 여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 ⑤ 그 사건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도 단순했다.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었다면 아버지는 오십 억 광년 저쪽에 있다는 머리카락과의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몸은 화장터에서 반 줌의 재로 분해되고, 영호와 나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 넣는 재를 보며 울었다. 난장이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고생을 했다. 아버지의 몸이 작았다고 생명의 양까지 작았을 리는 없다.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 벗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다. 학교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 ㉡ 우리 집에 새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었다.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다. 그래서 말년의 아버지는 자기 시대에 대해 양심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의 하나가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경제·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네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 버리고, 바람도 막아 버리고, 전깃줄도 잘라 버리고, 수도선도 끊어 버린다. ㉢ 그런 집 뜰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들어 갈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 꽃줄기에게까지 머물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세상도 이상 사회는 아니었다.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법을 가져야 한다면 이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 내가 그런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애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 ㉣ 나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 버렸다.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중략)

근로자 1: “아네요. 궁금해서 모여 서 있는 거예요. 설혹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달라요. ㉠ 저희가 어쩌다 하나인데 비해 사용자는 날마다 열 조항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용자 1: “문을 닫으세요.”

사용자 2: “양쪽 문을 다 닫으십시오. 애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아버지: “영수를 당분간 내보내지 말아요.”

어머니: “네.”

영 회: “큰오빠가 뭘 잘못했어? 잘못된 건 그 집 아이야.”

아버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니?”

영 회: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려댔어.”

아버지: “그 아이는 돌맹이를 던져 우리 집 창문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 아이에겐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난장이다.”

그래서, 나는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 놀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실패에서 바느질 바늘을 빼어 낚싯바늘을 만들었다. 불에 달구어 끝을 정확히 꼬부려 만들었다. 실을 두 겹으로 꼬아 초를 먹이고 그 끝에 바늘을 달았다. 어머니가 나가 놀아도 좋다고 한 날 나는 뒷산으로 달려 올라갔다. 긴 싸리나무를 꺾어다 낚싯대를 만들었다. 그해에도 가뭄이 들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펌프일을 나갔다. 방죽물도 바짝 줄었다. 나는 방죽 중간쯤에 들어가 낚시질을 했다. 내가 낚아 올린 붕어는 벽돌 공장 굴뚝 그림자 속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아버지가 당신의 입으로 난장이라고 한 말을 나는 그래서 꼭 한 번 들었다. 어머니는 펌프가에 앉아 보리쌀을 씻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 은강 전체가 저기압권에 들어 숨을 쉬기가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 어머니는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다. 먼저 영이에 대해 묻고 영희를 물었다. 어머니는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영이에게 여자가 가져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의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영이가 얼마 동안 고생을 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영이의 흰 원피스는 그날로 더러워졌다. 영희는 하룻밤 두 닢의 단식과 구호, 그리고 근로자의 노래만 부르며 되었다. 나는 혼자 돌아왔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린 세상을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 버리고, 전깃줄도 잘라 버리고, 수도선도 끊어 버린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비도 사랑으로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아버지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었다.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

###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는 의무만을 강요하는 시대에 불만을 품은 채 말년을 보냈다.
- ② 아버지는 자신이 난장이임을 나에게 자주 말하며 현실이 준 상처를 드러내곤 했다.
- ③ 어머니는 영이에게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의무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
- ④ 나는 아버지를 놀린 아이와 관련된 일로 사흘 동안 밖에 나가 놀지 못했다.
- ⑤ 영희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아버지를 놀린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

### 2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아버지가 난장이로 태어나 고통을 겪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아버지가 성실히 살았음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난장이 가족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은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에서 지나치게 부를 축적해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잘못을 비교하여 잘못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은강의 기상 상태를 통해 인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세상을 바라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교육을 통해 자신이 꿈꾼 세상을 이루려 한다.
- ③ ㉦과 ㉧은 모두 법률을 제정하여 사람들이 사랑을 지키도록 하려 한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려 한다.
- ⑤ ㉧은 ㉦과 달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성애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 2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사건들이 하나의 단락 안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시제가 구별되지 않은 채 서술된다. 또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유사한 장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들은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연시켜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한편 이 작품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단어나 구절 등을 반복하거나 다른 갈래의 형식을 삽입하기도 하고, 비현실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연결하기도 한다.

- ① ‘아버지가 꿈꾼 세상’의 모습이 ‘아버지가 그린 세상’의 모습에서 반복되어 서술되는데, 이는 인물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장면과 우리 가족의 대화 장면은 극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갈래의 형식을 삽입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보겠다’는 비현실적인 꿈을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실현 가능한 꿈과 관련지은 것은, 현실에서 실현된 이상 세계를 보여 주어 주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애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라는 사용자의 말과 ‘영수를 당분간 내보내지 말아요.’라는 아버지의 말을 연결한 것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이 유사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어머니가 ‘펌프가에 앉아 보리쌀을 씻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두 사건 사이에 명확한 시간 구분 없이 삽입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녁 한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 주고  
밥상머리에  
된장찌개도 데워 주고  
아버지가 식후에 석간을 읽는 동안  
아들이 식후에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는 동안  
연탄가스는 가만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  
그날 밤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① 꿈에 볼 것이다.  
날개에 산호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세 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의 손을 달고  
서양 어느 학자가  
Archaeopteryx\*라 불렀다는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한 마리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의  
제일 낮은 지붕 위에  
내려와 앉는 것을,

- 김춘수, 「겨울밤의 꿈」 -

\* 쥐라기: 시조새가 나타났던 중생대의 중간 시기.  
\* Archaeopteryx: 아르케옵테릭스, 시조새.

(나)

개봉동 입구의 길은  
한 송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고,  
굽은 길 어디에선가 빠져나와  
장미는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 길 밖에 선다.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있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어서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이고,  
그대와 나는  
사촌들 얘기 속의 한 토막으로  
비 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인다.  
  
말해 보라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저 불편한 의문, 저 불편한 비밀의 꽃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두드려 보라 개봉동 집들의 문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 오규원, 「개봉동과 장미」 -

2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명령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되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격화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시선을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확장시키는 매개체이다.
- ② ㉠과 ㉡은 모두 부정적 과거에서 벗어나 긍정적 미래로 향할 수 있게 해 주는 계기이다.
- ③ ㉠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는 동기이고, ㉡은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④ ㉠은 화자의 상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이고, ㉡은 대상이 이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원동력이고, ㉡은 대상이 현실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장소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비슷한 시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두 작품의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가)의 화자는 ‘연탄가스’에서 촉발된 상상력을 바탕으로, 연탄과 관련된 오래전 과거와 가난한 도시 사람들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어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개봉동’과 그곳에 종속되지 않고 순수한 생명력을 지키고 있는 ‘장미’의 대비를 통해 현대 문명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삶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연탄이 ‘가난한 시민들의/살과 피를 데워’ 준다는 것은 연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연탄가스’가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화자가 연탄과 관련된 오래전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제일 낮은 지붕 위에/내려와 앉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장미’의 ‘있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속성에 종속되지 않는 장미의 순수한 생명력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에서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발전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 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추어 송신 측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다. 만약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한다. 이때 자동 반복 요청 방식(ARQ)을 주로 사용한다.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될 경우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NAK라고 한다.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타임 아웃'으로 간주한다. 타임 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한다. 송신 측은 타임 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엔 ARQ,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정지-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신 측은 ACK 또는 NAK를 전송한 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한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그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고,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 아웃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고-백-엔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무조건 ACK를 ㉡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NAK를 보내는 방식을 명시적 방법,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방식을 묵시적 방법이라고 한다.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 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지만, 묵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타임 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선택적 재전송 ARQ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엔 ARQ와 ㉢ 같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다.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낸 후,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를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이 방식 역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으로 ㉣ 나눌 수 있다.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 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게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한데, 이 버퍼를 송신 윈도우라고 한다.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한다. 또한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 하는데,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정지-대기 ARQ는 송신 측과 수신 측 모두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 값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모두 1이 된다. 이와 달리 고-백-엔 ARQ의 경우 송신 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의 크기만 1이 된다. ㉤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같아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순서 번호부터 차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되며 ACK의 회신에 따라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된다. 예를 들어, 순서 번호의 최댓값이 9,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먼저 '0번, 1번, 2번' 3개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0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하면 0번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되고,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된다. 만약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의 ACK가 도착하면 송신 윈도우에는 3번 데이터만 남게 되기 때문에 4번과 5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9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했다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순서 번호가 0이 되며, 송신 측의 데이터가 모두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 버퍼: 동작 속도가 크게 다른 두 장치 사이에 접속되어 속도 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시적인 저장 장치.

\* 프로토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 또는 한 장치와 다른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하여 약속한 여러 가지 규약.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대기 ARQ에서 수신 측은 NAK를 보낸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
- ② 고-백-엔 ARQ에서 수신 윈도우는 정지-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 ③ 선택적 재전송 ARQ와 고-백-엔 ARQ 모두 송신 측은 ACK를 수신한 후에 다음 순번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 ④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ACK의 최대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 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 크기보다 큰 순서 번호부터 전송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송하려는 데이터의 개수는 12개이다. 송신 측은 순서 번호의 최댓값을 5로 설정한 후,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아래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의 데이터 저장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㉑	0	1	2	3	4	5
↓						
㉒	0	1	2	3	4	5
↓						
㉓	0	1	2	3	4	5
↓						
㉔	0	1	2	3	4	5
↓						
㉕	0	1	2	3	4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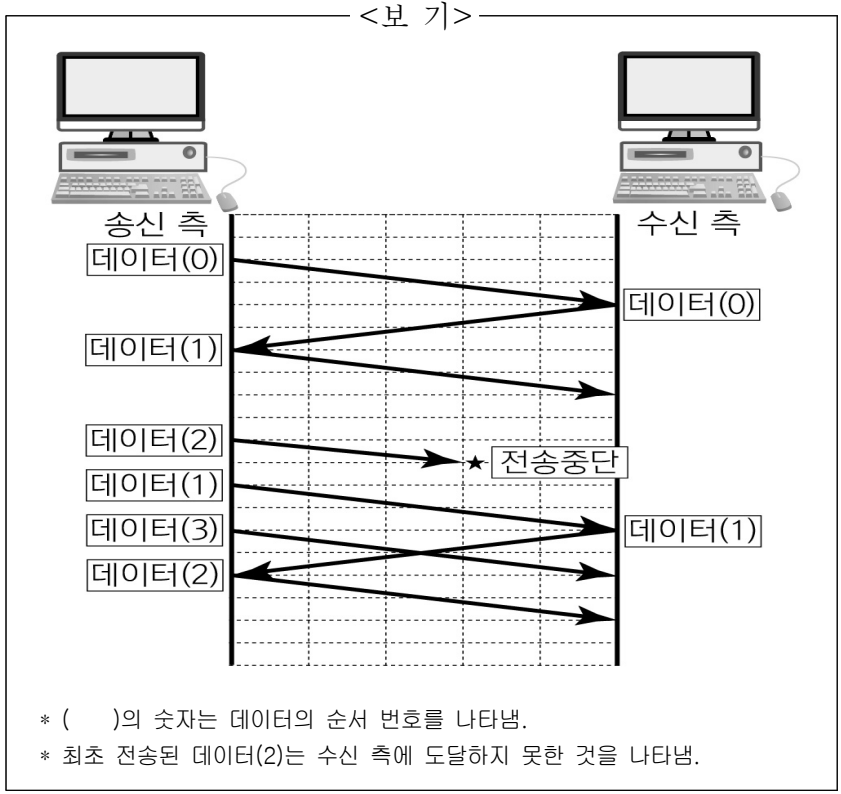
\* ㉑: 송신 윈도우의 최초 저장 상태  
\* □: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 / \* □: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

- ① ㉑를 통해 알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이다.
- ② ㉓에서 순서 번호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것은 ㉑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기 때문이다.
- ③ '㉒→㉓'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는 '㉓→㉔'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보다 적다.
- ④ ㉕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바로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순서 번호는 ㉑와 같다.
- ⑤ '㉑→㉕'의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 후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수는 0개이다.

30. ㉑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먼저 도착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오류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 ② 오류 검사가 끝나면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 ③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순번과 상관없이 ACK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 ④ 순번이 빠른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데이터의 수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⑤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가 재전송될 때까지 데이터 수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31. <보기>는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과정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데이터(1)을 재전송한 후 데이터(3)을 전송하는 것을 보니 <보기>의 오류 전송은 선택적 재전송 ARQ 방식에 해당하겠군.
- ② 처음 수신한 데이터(1)에 대한 응답 값을 수신 측이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기>는 목시적 방법에 해당하겠군.
- ③ 데이터(1)을 전송한 후 데이터(1)을 재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타임 아웃'으로 설정된 시간에 해당하겠군.
- ④ 송신 측이 데이터(2)를 재전송한 이유는 최초 전송된 데이터(2)에 대해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⑤ 수신 측이 데이터(3)과 재전송된 데이터(2)에 대해 ACK를 보낸다면 데이터(2)와 데이터(3)은 순서 번호에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전달되겠군.

32. 문맥상 ㉑~㉕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㉑: 그들은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 ② ㉒: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 ③ ㉓: 여행을 할 때에는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 ④ ㉔: 수익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 ⑤ ㉕: 열심히 노력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후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자기만의 ‘지평’을 갖게 된다. ㉠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는 확장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나)

㉡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 있다.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을 내재한 듯 느껴진다.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전통 철학은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는데, ‘메를로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신체, 즉 ㉢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메를로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하여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는 몸이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현실적 몸의 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며, 이런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 ‘몸틀’이라 하며,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며 현실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되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며 몸틀을 재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

한편 메를로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며 모호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혹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또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에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지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33.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두 글을 통합적으로 비교하기	ㅁ	

- ① ㄱ: ‘인식’과 연관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하였음.
- ② ㄴ: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제시하였음.
- ③ ㄷ: ‘인식’과 관련하여 특정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음.
- ④ ㄹ: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였음.
- ⑤ ㅁ: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음.

34.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식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 ②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 ③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 ④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지각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3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 ③ ㉠은 ㉡과 달리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은 ㉠과 달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⑤ ㉠과 ㉡은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36. ㉠의 이유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몸의 경험은 연습의 양과 상관없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 ② 몸이 자전거 타기를 통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 ③ 자전거를 배우기 전과 후의 몸들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 ④ 몸의 지각은 현실적 몸이 의식과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⑤ 새로운 운동 습관이 내재될 경우 몸들이 재편되어 자전거를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느 날 산속에 피어 있는 꽃을 가리키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진달래꽃은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지곤 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물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라고 말하였다.

- ① 후설은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지평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겠군.
- ②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군.
- ③ 메를로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스승’의 말에 동의하겠군.
- ④ 메를로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고 생각하겠군.
- ⑤ 후설과 메를로퐁티는 모두 꽃을 보기 전까지 꽃은 마음에 없었다고 말한 ‘스승’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대상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관서(關西) 명승지(名勝地)에 왕명(王命)으로 보내시매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연조문(延詔門) 나가서 모화고개 넘어드니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벽제(碧蹄)에 말 갈아 임진(臨津)에 배 건너 천수원(天壽院)  
 돌아드니  
 개성(開成)은 망국(亡國)이라 만월대(滿月臺)도 보기 싫다.  
 황주(黃州)는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거졌도다.  
 ㉡ 석양이 지거늘 채찍으로 재촉해 구현원을 넘어드니  
 생양관(生陽館) 기슭에 버들까지 푸르다.  
 재송정(栽松亭)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십 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에 엉기었다.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畵船)\* 을 비껴 보니  
 녹의홍상 비껴 앉아 가냘픈 손으로 거문고 짚으며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채련곡을 부르니  
 신선이 연잎 배 타고 옥빛 강으로 내려오는 듯.  
 ㉢ 슬프다, 나랏일 신경 쓰이지만 풍경에 어찌하리.  
 연광정(練光亭) 돌아들어 부벽루(浮碧樓)에 올라가니  
 능라도(綾羅島) 꽃다운 풀과 금수산(錦繡山)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 천 년 평양(平壤)의 태평문물은 어제인 듯하다마는  
 풍월루(風月樓)에 꿈 깨어 칠성문(七星門) 돌아드니  
 단출한 무관 차림에 객흥(客興)\* 어떠하냐.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건마는  
 백상루(百祥樓)에 올라앉아 청천강 바라보니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하물며 결승정(決勝亭) 내려와 철옹성(鐵瓮城) 돌아드니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 리에 벌여 있고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사방의 군사 진영(陣營)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에 으뜸이로다.  
 ㉤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다 진 때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약산동대(藥山東臺)\* 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백두산 내린 물이 향로봉 감돌아  
 천 리를 비껴 흘러 대(臺) 앞으로 지나가니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 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형승(形勝)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랴.

[A]

- 백광홍, 「관서별곡」 -

\* 화선 : 주연(酒宴)을 베풀 때에 쓰던 배.  
 \* 객흥 :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흥취.  
 \* 약산동대 : 평안북도 영변군 약산에 있는 천연의 대(臺), 관서 팔경의 하나.

(나)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江東)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物)을 창조할 때에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터이니, 어찌하여 한 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었다.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명주(溟州)로부터 원주(原州)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니, 완전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풀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죽령(竹嶺)에서 20여 리를 가면 **당진(唐津)**이라는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 반질하며 푸른 빛이 난다.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 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 같아 움푹하기도 하고 볼록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다.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밑에 거꾸로 비친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石壁)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었다. 어두운 저녁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에 **시(詩)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곳을 떠났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만리 길 정처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 바람에 달고 가네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이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천 냥이라도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두었다**가 우리 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명주(溟州)의 남쪽 재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니, **조그마한 성(城)**이 있는데 동산(洞山)이라 한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하여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 임춘, 「동행기」 -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이 맡은 직분이 왕명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행동을 제시하여 여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풍경을 과장되게 묘사하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자연물을 언급한 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39.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동 지방’을 여행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남쪽 지방’의 경치를 ‘강동 지방’에 비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남쪽 지방’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과거에 자신이 다니며 보던 곳과 비교하여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의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울 부근’의 경치를 언급하며 ‘놀이 좋아하는 귀족들’과의 갈등이 여행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40.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겨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B]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 ④ [A]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B]는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지상에서 하늘로, [B]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양한 공간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행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서 각각의 장면은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景)과 경치에서 촉발된 흥취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인 정(情),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議)의 반복을 통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때 작가의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과 ‘의’를 생략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벽제’와 ‘임진’, ‘천수원’을 언급할 때 ‘정’과 ‘의’를 생략하고 ‘경’만 제시한 것은 화자의 여행 경험을 속도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② (가)의 ‘청천강’을 바라보며 ‘장하기도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여행 과정에서 화자가 마주한 ‘경’과 이에 대한 ‘정’이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나)의 ‘시 한 편’에 담긴 정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정’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④ (나)의 글쓴이가 강동 지방에 대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둔 곳이라 말하는 것은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는 ‘의’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⑤ (나)의 ‘조그마한 성’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쓴이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한 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을 유발하는 ‘경’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왕경룡은 아버지가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절강으로 돌아가던 중 서주에서 기생 옥단을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기생 어머니는 경룡의 재물이 떨어지자 노림에서 죽이려 하지만 경룡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떠돌게 된다. 이후 어렵게 살아가던 경룡은 옥단을 다시 만나고, 잃었던 재물을 옥단의 기지로 되찾아 절강으로 가려 한다.

옥단이 답하여 말하였다.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니 만일 방법이 있사오면 목숨을 보존하려니와 만일 몸을 더럽히는 지경에 이르면 죽을 뿐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경룡이 마침내 울며 이별하고 절강으로 향하였다.  
 옥단이 공자를 보내고 **침방**에 돌아와 시비와 함께 약속하고 각각 옷을 찢어 그 입을 막고 줄을 그 손과 발에 얽매고 침상 아래에 거꾸러졌다.  
 이튿날 **기생집**의 노복이 경룡의 일행과 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생 어머니에게 고하니, 기생 어머니가 취함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 옥단의 침소에 가서 보니 옥단과 시비가 모두 침상 아래에 엎어져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기생 어머니가 놀라서 구원하니 짐짓 깨어난 채하며 말하였다.  
 “내가 어제 공자를 보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모친이 지극히 권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공자가 비록 노림에서의 원한을 잊었다 하나 간밤에 취침할 때에 서로

합방치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니 밤이 깊음에 가만히 그 종자를 불러 들어와 그 금은보화를 다 거두어 갔나이다. 우리를 결박하여 죽이려 하다가 공자가 이를 알고 살렸사오나 첩이 욕복은 가히 원통치 아니하나 가산을 다 잃었사오니 어찌 통탄치 아니하리요? 첩이 묵일 때에 그 약속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추적할 것을 두려워하여 서주 관청에 머물다가 도망가자 했으니 속히 잡으십시오.”

기생 어머니가 이웃 사람을 모아서 말을 타고 **서주 관청**에 이르니, 옥단이 갑자기 기생 어머니를 말에서 끌어 내리치고 관청 서리와 이웃 사람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첩이 본래 양가집 자식으로 부모님을 잃어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할미가 나의 자색을 보고 양녀를 삼아 여러 사람들에게 값을 취하려 하니 어찌 어머니와 딸 사이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전날에 절강 사는 왕경룡이 마침 첩을 보고 흠모하여 수만금을 들여 저를 아내로 맞아 해로하려 했더니, 저 할미가 음모를 꾸며 노림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다행히 벗어나 맨몸으로 환향하다가 첩을 사모하여 다시 재물을 가지고 어제 다시 왔었더니, 저 할미가 또 재물을 뺏으려 하니 공자가 그 기미를 알고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미가 다시 데리고 와서는 재물도 빼앗고 공자를 죽이려 하였기에 첩이 거짓으로 함께 모의를 하는 듯하여 왔으니, 당초 일의 과정은 이웃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어찌 거짓을 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그 기생 어머니를 끌고 송사에 나가려 하였다. 이 일은 이웃 사람들이 아는 바여서, 밤사이의 음모를 믿고 모두 옥단이 옳고 기생 어머니가 그르다고 하면서,

“왕 공자가 재물을 훔쳐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우리들 [A]에게 쫓아가자 하옵기로 왔사오나 만약 공자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정을 알았으면 어찌 따라왔겠습니까?” 하였다.

서리들이 또한 노림의 일을 아는지라 모두 다 기생 어머니를 꾸짖어 도적이라고 말하고, 옥단에게 권해 송사하게 하였다.

기생 어머니가 두려워하거늘, 옥단이 말하였다.  
 “할미가 비록 지아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나를 길러 준 은혜가 있으니 일단 관아에 송사하지는 않겠소. 그러면 나를 끝까지 수절하게 하여, 헐박하지 아니하겠소?”

하니, 기생 어머니가 허락하거늘, 옥단이 서리를 청하여 문서를 쓰고 이웃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 후 문서를 가지고 돌아와 **북루**에 올라 시비를 불러 쌀을 빌어 조석으로 바치게 했다.

그 시비 또한 정성으로 쌀을 빌어 낭자를 구원하니 그 시비의 이름은 난영이었다. 또한 자색이 있고 성품이 타인을 더불어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본래 옥단이 양가집에서 데리고 온 시비였다.

기생 어머니가 옥단을 해치고자 하나, 이웃이 알까 염려하였다. 한편 전날 조씨 상인에게 금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조씨 상인이 옥단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금은을 돌려받고자 하였다. 기생 어머니는 그 재물이 아까워 몰래 약속하여,  
 “이리이리하십시오.”

하였다.  
 몇 개월 뒤에 기생 어머니가 옥단을 구박하여 말하였다.  
 “네가 공자를 위하여 나를 배반하고 비록 내 집에 있으나 이익되는 것이 없으니 북루를 비우고 나가 살아라.”

하고, 옥단을 내쫓았다. 이에 앞서 기생 어미가 마을에 있는 장사치 할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비밀리에 약속을 했다.

옥단이 쫓겨나 시비 하나를 거느리고 돌아갈 곳이 없어 길가에 앉아 통곡하니, 길에서 한 할미가 그 까닭을 묻고 거짓으로 우는 체하며 말하였다.

“제가 매양 남자가 정조를 지키려 고생스럽게 쌀을 빌어 입에 풀칠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이제 다시 쫓겨나 의탁할 곳이 없으니 누추한 내 집에서 머물도록 하오.”

남자가 다행스럽게 여겨 감사하고 따라가 할미의 집에 거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할미가 말하였다.

[B] “저는 남자가 절개 지킴을 어여삐 여겼습니다. 하여 약간의 가산을 팔아 인마를 갖추어 남자를 데리고 절강으로 가자 합니다. 절강에 도착하면 남자께서는 능히 공자로 하여 금 후한 값을 치르게 하여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옥단이 그 말을 다행히 여겨 감사하여 말하였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어찌 힘을 다하여 갚지 않겠습니까?”

할미가 허락하고 마부와 말을 내어 행장을 수습하여 날을 받아 길을 떠났다.

여러 날 만에 서주의 경계에 이르니 갑자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옥단을 에워싸고 구박하면서 데리고 갔다. 옥단이 할미를 불렀으나 간 곳이 없거늘, 무리에게 말하였다.

“무슨 연유로 너희가 나를 위협하여 데리고 가는 게냐?”

모두가 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조씨 상인이 시키는 대로 남자를 맞이하여 데려가거늘 무슨 위협이 있겠소?”

옥단이 몹시 통곡하며 말하였다.

“내가 두 할미에게 속았구나.”

하고, 말에서 떨어지니, 무리들이 부둥켜안아 옥단을 말에다 태웠다.

- 작자 미상, 「왕경룡전」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침방’은 옥단이 경룡의 무리에게 결박당했다고 기생 어미를 속이는 장소이다.
  - ② ‘기생집’은 기생 어미가 부모를 잃은 옥단을 위해 난영을 시비로 내어 준 공간이다.
  - ③ ‘서주 관청’은 옥단이 기생 어미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생 어미를 유인하여 데리고 간 공간이다.
  - ④ ‘북루’는 옥단이 경룡에게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던 다짐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 ⑤ ‘서주의 경계’는 절강에서 경룡을 만날 수 있다는 옥단의 기대가 깨지는 공간이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난영은 이웃 사람과 더불어 사귀기를 좋아했다.
  - ② 서리들은 옥단이 작성한 문서에 증인으로 서명했다.
  - ③ 조씨 상인은 자색이 있는 난영을 얻기 위해 무리를 보냈다.
  - ④ 옥단은 관청에서 돌아온 뒤 난영이 빌어 온 양식으로 어렵게 살아갔다.
  - ⑤ 이웃 사람들은 노림의 일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 옥단에게 송사를 권유했다.

4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B] 모두에서 화자는 상대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며 상대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화자가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 ⑤ [A]에서 화자는 상대에게 자신이 현재 장소로 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고, [B]에서 화자는 상대에게 현재 장소를 떠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 장애 모티프를 지닌 애정 소설이다. 여자 주인공 옥단은 신분이 기생이지만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정절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옥단의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인에 의해 방해받는다.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가 드러나며, 악인의 음모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전환되기도 한다.

- ① 옥단을 쫓아낸 기생 어미와 쫓겨난 옥단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장사치 할미가 대립하는 모습에서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기생 어미가 경룡의 재산을 다시 빼앗고 죽이려 한 음모로 인해, 옥단이 기지를 발휘하여 경룡이 자신의 재물을 되찾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군.
- ③ 조씨 상인의 재물을 돌려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기생 어미의 욕심은, 기생 어미가 조씨 상인의 무리들에게 옥단을 납치하도록 하는 음모를 꾸미는 원인이 되는군.
- ④ 옥단과 재회한 경룡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후 해로하기로 한 옥단을 남겨둔 채 절강으로 떠나는 모습에서, 경룡과 옥단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 장애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옥단이 송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기생 어미에게 자신의 정절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승낙을 받는 장면에서, 기생이지만 유교적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